

2020년 9월 1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과 다우의 엇갈린 행보 속 혼조 마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마이너스 금리와 YCC 는 매력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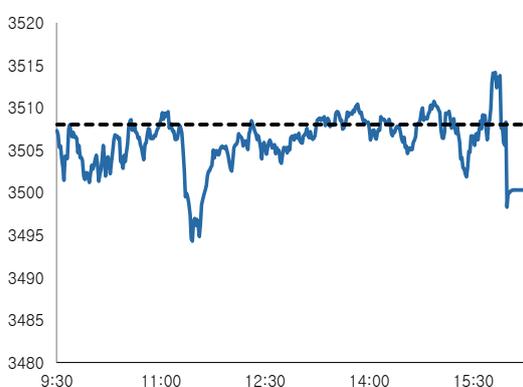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①연준위원들 발언 ②개별 종목 이슈에 의해 변화

미 증시는 아시아, 유럽 증시의 특징처럼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특히 연준위원들이 경기 회복이 정체되었다고 주장하고, YCC 정책은 테이블에 없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주식분할을 단행한 애플(+3.39%)과 테슬라(+12.57%)에 대한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유입되며 나스닥은 강세. 물론 장 마감 앞두고 차익 매물 출회가 확산 된 점도 특징(다우 -0.78%, 나스닥 +0.68%, S&P500 -0.22%, 러셀 2000 -1.04%)

미 증시는 ①연준위원들 발언 ②개별 종목 이슈에 의해 변화. 지난 7월 FOMC 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 경기 회복의 둔화세가 시작되었다” 라고 주장한 데 이어 많은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기 회복 둔화를 우려하고 있음. 오늘도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7,8 월에 회복세가 정체 되었다” 라며 예상보다 느린 회복을 우려. 이런 가운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고용이 안정되면 임금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라는 과거 모델은 틀렸을 수 있어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해 저금리 기조 유지를 시사. 특히 평균 물가 목표제는 기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며 ‘유연성’을 강조해 연준도 뚜렷한 수치가 없음을 보여줌. 더불어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에 맞지 않다” 라고 주장하고 “수익률 곡선 제어(YCC)도 이점이 대단하지 않다” 라며 추가적인 연준의 정책은 없음을 시사

한편, 애플(+3.39%)과 테슬라(+12.57%)는 주식 분할 이후 쏠림 현상이 유입되며 급등. 각각 아이폰 12 와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로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아마존(+1.45%)은 미 연방 항공청 (FAA)이 배송에 드론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데 힘입어 상승. 아마존은 이를 통해 30 분 배송의 비전을 실행 할 수 있다고 주장. NVIDIA(+1.72%)와 인텔(+1.03%)은 화요일 정오 각각 GeForce RTX 3000 와 Tiger Lake 칩 출시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해 나스닥 강세를 견인. 다만 장 마감 직전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 반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1.17	2,326.17	홍콩항셍	25,177.05	-0.96		
KOSDAQ	+0.82	848.24	영국	5,963.57	휴장		
DOW	-0.78	28,430.05	독일	12,945.38	-0.67		
NASDAQ	+0.68	11,775.46	프랑스	4,947.22	-1.11		
S&P 500	-0.22	3,500.31	스페인	6,969.50	-2.29		
상하이종합	-0.24	3,395.68	그리스	633.98	-0.08		
일본	+1.12	23,139.76	이탈리아	19,633.69	-1.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재료 유입된 종목만 상승

애플(+3.39%)과 테슬라(+12.57%)는 주식 분할 이후 미국 일부 증권사의 거래가 지연 되는 등 급격한 쏠림 현상이 유입되며 급등했다. 넷플릭스(+1.08%)는 성장 둔화 소식이 전해졌으나 주식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치포솔 멕시코 그릴(+0.67%)과 함께 상승했다. 아마존(+1.45%)은 주식분할 기대와 연방항공청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승인했다는 소식으로 상승했다. NVIDIA(+1.72%), 인텔(+1.03%)은 화요일 정오에 새로운 그래픽 카드 및 칩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그동안 약가인하 우려 속 하락하던 버텍스(+3.39%) 등이 강세를 보였고 노바백스(+2.41%)는 캐나다가 백신 수입 발표로 강세를 보였다. 비온드 미트(+3.69%)는 투자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했다.

반면, JP모건(-2.51%), 웰스파고(-2.19%) 등 금융주는 연준의 경기 회복 정체 언급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디즈니(-2.71%)는 넷플릭스 성장 둔화 소식 여파로 부진했다. 델타항공(-3.47%), 보잉(-2.26%) 등 항공주 및 매리어트(-3.15%) 등 호텔, 엑손모빌(-1.84%), 셰브론(-1.99%) 등 에너지 업종은 경기 회복 정체 및 WHO가 코로나 방어에 성공했다고 선불리 언급하지 말라는 경고 여파로 하락했다. 줌비디오(+8.63%)는 양호한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9% 상승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92%	대형 가치주 ETF(IVE)	-0.75%
에너지섹터 ETF(OIH)	-2.81%	중형 가치주 ETF(IWS)	-1.15%
소매업체 ETF(XRT)	-1.46%	소형 가치주 ETF(IWN)	-1.63%
금융섹터 ETF(XLF)	-1.18%	대형 성장주 ETF(VUG)	+0.40%
기술섹터 ETF(XLK)	+0.32%	중형 성장주 ETF(IWP)	+0.3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9%	소형 성장주 ETF(IWO)	-0.50%
인터넷업체 ETF(FDN)	+0.77%	배당주 ETF(DVY)	-1.11%
리츠업체 ETF(XLRE)	-0.87%	신흥국 고배당 ETF(DEM)	-1.66%
주택건설업체 ETF(XHB)	-1.2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66%
바이오섹터 ETF(IBB)	+1.92%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0.24%	하이일드 ETF(JNK)	-0.04%
곡물 ETF(DBA)	+0.61%	물가연동채 ETF(TIP)	+0.45%
반도체 ETF(SMH)	-0.15%	Long/short ETF(BTAL)	+1.5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6.50	-2.19%	-3.75%	-2.31%
소재	395.69	-1.49%	+0.01%	+4.86%
산업재	656.22	-1.18%	+0.01%	+7.88%
경기소비재	1,253.91	+0.17%	+1.94%	+10.04%
필수소비재	671.53	-0.32%	+1.20%	+4.86%
헬스케어	1,259.88	+0.32%	+1.89%	+1.49%
금융	415.53	-1.24%	+0.73%	+3.93%
IT	2,172.20	+0.36%	+3.97%	+9.12%
커뮤니케이션	209.04	-0.41%	+3.27%	+9.08%
유틸리티	299.46	+0.32%	-1.25%	-2.01%
부동산	224.57	-0.85%	+0.79%	+1.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차익 욕구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2.41%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2.22%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7.6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인 1 조 6 천억원을 순매도하며 KOSPI 기준 1.17% 하락했다.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 차익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한국 증시는 MSCI 리밸런싱 가능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매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시장 대부분이 고점 대비 1% 이상 하락한 점을 감안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등 글로벌 시장 대부분 조정을 보였다.

한편, 미 증시에서 일부 기술주가 개별적인 요인으로 강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기 회복이 정체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마이너스 금리와 YCC 정책 시행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미국 경기 회복 둔화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약화 시킨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물론 일부 종목들에 대한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으나 기업 가치와 동떨어진 상태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차익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8 월 수출입 동향,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 등 펀더멘탈에 주목하며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

8 월 미국 달라스 연은 지수는 전월(-3.0)이나 예상(-1.0)을 상회한 8.0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6.9→9.8), 고용지수(3.1→10.6) 등은 개선 되었으나 생산지수는 전월의 16.1을 하회한 13.1로 발표되었으며 설비 가동률 또한 14.0에서 10.9로 약화 되었다.

8 월 중국 제조업 PMI 는 전월(51.1) 보다 둔화된 51.0 으로 발표되었으나 서비스업 PMI 는 전월(54.2) 보다 개선된 55.2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연준위원들 발언 여파로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피해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자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했다. 더불어 연준위원들이 미국 경기 회복이 정체 되었음을 시사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도 부담을 줬다.

달러화는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실업률이 낮아져도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 라고 주장 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보스틱 애프란타 연은 총재가 미국 경기 회복이 정체 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 경기 위축 우려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엔화는 아베가 사임한다고 해도 아베노믹스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입되며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금리는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실업률이 낮아져도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보스틱 애프란타 연은 총재가 “7,8 월 미국 경기 회복이 정체 되었다” 라고 언급하자 하락했다. 한편,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마이너스 금리의 실효성과 YCC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해 단기 금리는 상승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연준의 지속된 경기 회복 정체 언급 등에 기대 상승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도 여전해 상승은 제한 되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영국 LME 시장이 휴장이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8% 철근은 0.1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2.61	-0.84	-0.02	Dollar Index	92.198	-0.19	-1.18
브렌트유	45.28	휴장	-0.79	EUR/USD	1.1935	+0.27	+1.25
금	1,978.60	+0.19	+2.03	USD/JPY	105.89	+0.49	-0.08
은	28.594	+2.89	+6.82	GBP/USD	1.3365	+0.09	+2.31
알루미늄	1,800.00	휴장	+1.67	USD/CHF	0.9038	-0.04	-0.89
전기동	6,667.00	휴장	+2.32	AUD/USD	0.7374	+0.12	+2.95
아연	2,515.00	휴장	+2.84	USD/CAD	1.3047	-0.40	-1.29
옥수수	357.75	-0.42	+3.70	USD/BRL	5.488	+1.83	-2.20
밀	552.25	+0.64	+4.64	USD/CNH	6.8496	-0.14	-0.91
대두	953.50	+0.32	+5.27	USD/KRW	1187.80	+0.30	-0.11
커피	129.05	+2.14	+7.41	USD/KRW NDF1M	1187.67	+0.60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703	-1.80	+4.89	스페인	0.376	-1.00	+8.10
한국	1.527	+4.20	+14.50	포르투갈	0.402	+1.40	+8.00
일본	0.051	-0.80	+2.40	그리스	1.093	0.00	+0.60
독일	-0.397	+1.20	+9.40	이탈리아	1.043	+2.50	+1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